

장려품종중 숙기다른 2~3품종 재배

경기도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이 경 용

기본설계

○	○	○	○	○	○
미질향상 위한 대비책	재해에 대한 대비강화	건묘육성과 적기이앙	정밀예찰로 방제철저	땅심을 높여 안전영농	장려품종을 선택 안배

오늘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높아져 가고있어 모든 자원의 교류가 상호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만 가능할 정도로 국제정세가 냉혹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풍년농사”는 매년 되풀이 하여 강조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 해는 태풍과 저온등 기상이변과 극성스러웠던 병충해 속에서도 농민들의 풍년의지의 실천으로 3,893만석의 쌀을 생산하여 6년 연속 풍년을 성취하므로서 국민모두의 가슴에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지난 어느해 못지 않은 풍년과 농가소득향상으로 밝

고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7년 연속 풍년농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신년 영농설계를 잘 하여야겠다.

7년 연속 풍년 위해 노력

농가소득의 47.9%를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를 보전대 농가소득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1인당 160여평에 불과한 좁은 경지면적을 가진 우리나라인 만큼 한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해야 할 상황이다.

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주곡으로서의 쌀의 자급도가 낮아, 부족량을 매년 도입하여 충당하여 왔다. '85년에 이르러서야 자급율 103.4%로서 자급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불리한 기상여건을 맞게될 경우 모처럼 마련된 자립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있어 항상 재해를 염두에 두고 처방된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도 대풍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에 알맞는 장려품종 중에서 숙기가 다른 2~3개 품종을 골라 재배해야 한다.

간혹,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

논에 맞지도 않는 비장려품종을 재배하거나 특정한 품종을 지나치게 편중재배함으로써 기상재해를 회피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을 안고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에는 자기 논에 알맞는 보급종 법씨를 신청·구입하거나 시범포 경작농가로부터 자율교환하여 재배해야겠다.

둘째, 땅심을 높여 안전한 벼농사를 짓도록 해야 한다.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흙은 자원의 원천으로서 가장 중시하여 왔다. 흙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衣食住)의 원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며 잘 가꾸기만 하면 영원토록 생산이 계속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농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형식적으로 논갈이를 하고 논가림식의 객토사업, 퇴비 한 줌 넣지 않고 벼농사를 지음으로써 재해의 피해를 면치 못해 좋은 수량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국 논의 67%가 저위생산지

우리가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농사를 지어온 대부분의 논은 모재(母材)가 화강암(花崗岩)이어서 칼슘함량이 적고 산성반응

을 나타내는 토양이 많다. 또한 유기물 함량이 빈약하며 모래논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약 67%의 논이 저위생산지(低位生産地)로 조사 분류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영농을 지도하는 농사관계 공무원들은 농토배양 즉, 땅심기르기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수논은 객토해주도록

물을 가두어 2~3일도 못가는 모래논에는 반드시 객토를 하여 거름기가 유실되지 않는 논으로 만들어주고, 농토사정이 좋지 못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좋은 흙이 없어 객토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대체객토원으로서 제오라이트를 사용하여 객토효과를 보도록 해야겠다.

규산·벼짚넣고 깊이 갈이

농촌지도소에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각 농가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통보한 바 있는 「농토배양 처방서」를 근거로하여 3~4년에 한번씩 10a당 200~300kg의 규산질비료를 주고 생산된 벼짚을 팔거나 태우지 말고 2~3등분으로 잘라 고루 넣고 깊게 갈아 주도록 하는등 땅심을 높여

각종 재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여 농가를 안전하게 잘 짓도록 해야 한다. 벼짚 북더기를 태워버리는 농민, 논한번 갈지 않고 모내기 며칠전에 물을 대고 경운기 로타리 작업만으로 모내기하는 농민, 유기물 한짐 넣지 않고 금비만 가지고 짓는 벼농사를 올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완벽한 병충해 방제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겠다.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는 경우에 따라서 방제를 소홀하게 하면 엄청난 감수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해 병충해 손실 2천억원

해마다 벼의 병충해 발생피해는 기상여건, 재배되는 품종분포와 비배관리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나 대략 4~7%의 피해감수율을 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3.43%의 감수를 가져옴으로써 쌀로 약 167만석, 금액으로는 약 2,000여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벼의 병충해는 종합방제로서 땅심기르기를 잘하여 벼를 튼튼하게 키워 아무리 병충해가 만연해도 체질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고 내병충성품종(耐病虫性品種)을 골라 재배하고 제때에 알맞는 비배관리를 한다음 마지막

단계로 예방적인 농약살포를 하는 것이 좋다. 옛날과 달리 요즘의 벼농사는 일찍 모를 길러 밀식함으로써 비료를 많이 주어가꾸는 다수확재배로서 재배환경이 바뀌어 병충해발생·피해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방제효과가 높은 농약이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방제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침투성 농약으로 사전방제

본답 초기에 피해를 주는 저온 온성해충(벼애잎굴파리, 벼잎벌레, 벼줄기굴파리)과 미질을 나쁘게 하는 벼이삭선충, 매년 비래량이 증가되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멸구류(흰등멸구, 벼멸구) 등의 충해와 이삭도열병, 태풍후의 흰잎마름병등의 병해를 올해부터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혼합제농약과 침투성농약을 선택하여 사전 적기정밀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안전사용기준 지켜야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방제노력을 줄이며 안전다수확을 실현할 수 있으나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공해(公害) 내지는 농약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4~9월까지 매 주에 걸쳐서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에서 발표하는 「농작물 병충해 발생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에 병충해 방제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튼튼한 모를 길러 적기에 모내기를 해야 한다.

오랜 옛날부터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한말은 벼농사에 있어서 모기르기를 상당히 중요시 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실제로 요즘 다수확을 하는 많은 농민들의 영농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튼튼한 모기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수 있다.

보은못자리로 건묘육성토록

모내는 시기를 감안하여 못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범씨를 뿌림에 있어서 유의할 점으로서는

○너무 배게 범씨를 뿌려 연약한 모를 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모작 기준으로 씨뿌림 판장면적을 본논 10a당 최소한 11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뿌리에 산소공급이 충분히 잘 되는 보은밭못자리를 많이 설

치하여 묘소질(苗素質)이 좋은 튼튼한 모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안전다수확의 요체가 되므로 이를 꼭 실천토록 하여야겠다.

상토조제에 각별한 관심 필요

금년부터 평야지 완전기계화 시책목표와 농촌일손 부족에 따라 급속하게 기계모내기 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수년간 기계모내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일부 농민은 자만심(自慢心)으로 상자모기르기에 있어서 상토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범씨 뿌리기 몇일전에 상토를 구하여 밀거름도 섞지 않고 상자에 담아 범씨를 배계 뿌려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상토로 쓰는 흙은 이른 봄 또는 가을에 미리 준비하여 알맞는 산도(pH)조정, 질록병과 뜸모 예방을 위한 소독, 밀거름을 섞어 사용하고,

○충분한 상자를 준비하여 싹틔운 범씨를 알맞게 뿌려야 하고 너무 배계 범씨를 뿌려 모가 연약하게 자라거나 뜸모, 들뜸모 및 모질록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규격 못줄로 평당 주수 확보

모내기는 알맞는 때에 일찍 끝

내도록 하고, 반드시 규격못줄을 사용하여 평당 주수가 확보되도록 마을단위 모내기 작업반과 도급모내기 작업단에 작업전 심는 포기수 협약을 하여 모내기를 하도록 하며 특히 기계모내기에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하여 모를 내게되면 포기수가 아주 적게 심겨지므로 유의할 것이다. 기계모내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수확이 감소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다섯째, 재해없는 벼농사를 짓도록 모든 대비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올해는 가뭄을 비롯하여 풍수해 또는 냉해가 올 것이라는 견제하에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가뭄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논물가두기는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잘 실천하고 있다.

찬물유입논에 돌림도랑 설치

가뭄대비책 못지않게 풍수해 상습지 대비책으로 알맞는 품종을 골라서 심도록하며 땅심을 높여주고 알맞게 비료를 주어 풍수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찬물대는 논에는 반드시 비닐튜브를 이용하거나 물돌림도랑

을 만들어 물온도를 높여 물대기를 해야 한다.

몇 년간에 걸쳐 거듭되었던 풍년으로 자칫 방심할 우려가 있으나 지난 '80년도의 냉해를 상기하면서 모든 재해에 대비한 영농준비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겠다.

여섯째, 쌀의 품질을 높이기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일부 농가에서 벼벼를 갈아말리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는 미질이 나빠지고 집중호우(集中豪雨)때에 썩거나 유실(流失), 수발아(穗發芽)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작은 단 묶어 세워말리기를 한 농가도 빠짐 없이 실천토록 해야겠다. 생탈곡한 벼를 건조기에 넣어 높은 온도로 말리거나 아스팔트 위에서 말림으로써 금간쌀이 많아진다. 건조기에서는 35~42℃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하고 모기장·망사이용(網絲利用) 벼알말리기 또는 개량공간을 이용하여 쌀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겠다.

특히 많은 농가에서 콤바인으 수확을 원하고 있어 작업순서를 기다리느라고 벼베기가 늦어져 이로 인해 금간쌀이 증가되어 손해를 보게되므로 반드시 제때에 벼베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가격안정으로 소득증가

지난해에는 농가에서 재배, 사육되었던 농축산물의 가격불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올해에도 한우사육, 양돈에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산업사회의 변천으로 도시인구 집중과 소비자들의 기호(嗜好)가 연중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도 생활구조가 현금소요를 급증케 하고있어 상업농시대에 돌입하여 환금 작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적정생산체계의 미확립, 유통구조의 개선이 미흡하여 생산·소비부문 모두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다 같이 만족스런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통정보에 따른 적지 적작목을 재배·사육하고 경영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겠다. 수시로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재배와 사육동향을 참고로하여 손해없이 적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영농이 되도록 해야겠다.

○생력재배(省力栽培)로써 생산비를 줄여 소득을 높이고 생산